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7호 [루게 제23354호] 주제 100 (2011)년 2월 6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축하장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제 100 (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축하장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축하장을 보내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 국무원 총리 온가보동지,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제브 로씨야연방 대통령,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처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아랍사회주의 공화국 지역비서인 바사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인 쯘말리 싸이 나손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셸 팔레민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탄 스웨 만마련방 국가평화발전리사처 위원장, 짜이아진 엘베그도르프 몽골 대통령, 질루르 라오만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 셰이크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쿠웨이트국가 추장, 마하 바지라몽콘 라이준비위원회 위원장, 아피제트 웨차라프 타이 왕국 수상,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포리아스 키프로스공화국 대통령, 에모달리 라흐몬 파르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쿠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세르주 싸르기얀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호 2세 하세미도프 아르단왕국 국왕,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우셀룰 밤방 유도노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호 살레호 예멘공화국 대통령, 쉐민 쟈엣 헬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게오르기 이와노브 마케도니아공화국 대통령, 알베르 모냐코공국 국왕, 펠로 폼피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무위원회 위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필리브 부야노비치 프르나그라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존 에번스 아라 밀즈 가나공화국 대통령, 알파 콘데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마두 투마니 투레 말리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블레즈 콤포오베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오미양 느케마 므바

쑤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랑수아 보지제 양구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페펠라가 알제리 인민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 두스 신탄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기르마 월레기오르키스 에티오피아인민민주공화국 대통령, 다니엘 오르메가 짜베드라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리버풀 도미니카 연방 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플라 다셀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국제 김일성기념 리사장, 유엔사무총장,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중국 로병성 인민정부 성장, 흑룡강성인민정부 성장, 로씨야연방 원동지방주제 대통령전대표, 모스크바시장, 하바롭스크시장, 연해변강령정장판에게 축하장을 보내시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신문이 특집

여기서는 그이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다. 그의 헌신의 장정이 있어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이께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시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의 명절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낼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낼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낼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

여기서는 그이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다. 그의 헌신의 장정이 있어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이께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시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의 명절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낼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낼바 전 브라질연방공화국 대통령, 조지 막스웰 리처드 트리니แดด 토바고공화국 대통령.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부부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시는 령도자께서는 하루빨리 조선을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어 위하여 맡고대려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령군을 이어가고계신다.

만나신문 《더 보이스》 1월 24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전을 모시고 《김정일, 인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의 세기적소망을 실현해주시는 분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여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그이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고 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1월 23일부는 《민음의 정거장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신 정치가시라고 하면서 믿음의 정치로 승려될것이라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사회주의조선은 길이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의 세기적소망을 실현해주시는 분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여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그이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고 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1월 23일부는 《민음의 정거장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신 정치가시라고 하면서 믿음의 정치로 승려될것이라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사회주의조선은 길이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준비위원회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타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라자바트 프라나르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타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라자바트 프라나르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타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라자바트 프라나르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타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라자바트 프라나르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성대국의 희망찬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것인 래일을 내다보며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농업 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대형원추형파쇄기가 은을 낸다



올해의 주공전선을 맡아나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영원히 믿고 살 위대한 아버지 품

경애하는 장군님은 오늘도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 계신다! 새해벽두부터 편일 전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그에게로만 끌려가고 있다.

인민의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맹장 강수위속에서도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우에 가장 뜨겁게 수놓아지는 것이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다.

열렬한 그 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현지지도길에 꽃피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위대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 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자욱자욱 파르르라면 그에게서 군인들이 좋아할것이다 혹은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리방선의 초소들과 공장, 농촌 등 수많은 단위를 찾으신다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혹은 무엇을 보내주실지, 그러고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곤 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협준한 산밭들을 넘고 넘어오시어 초소를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러고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되새겨진다.

우리 장군님께서 청년영웅도로가 한창 건설될 때에는 모든 돌격대원들에게 만두를 푸짐히 해먹이시고, 그러고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되새겨진다.

자강도의 노동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그리고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 등은 지금도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군인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인민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우리 장군님의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에 뜨겁게 울리는 말씀을 되새기수록 오늘도 초소의 군인들이 즐겁게 리용하고 있는 노래반주 기능을 갖춘 DVD복화기에 깊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몇해전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의 모든 중대들에 차례로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복화기 그리고 보충용 《선물》 음악과 함께 군인들이 좋아하는 천수백곡의 노래가 수록된 DVD가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제 인민군대에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복화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선물》 음악이 수록된 DVD도 함께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모든 중대들에 빨리 공급해 주어 군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건군절을 즐겁게 쇠도록 하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한껏 웃으시었다.

군인들이 그토록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후회되는 것은 마음을 안고 일군들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이 부족하오나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할것들을 다 해결해주신데 대하여 회고하시었다.

그후 건군절을 맞으면서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어린 노래반주기능을 갖춘 DVD복화기와 많은 노래가 수록된 DVD

를 받아안은 병사들은 뜨거운 심장 의 웨침을 노래에 담아 버치었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헤아릴수 있었는가.

저 멀리 최전연의 판문점초소머리 오십산과 대덕산초소 그리고 외진 섬소초 등 이 땅의 초소들마다에 령도자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군사들이 있으며 그들의 기쁨속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자욱을 전초기에 새기시는 분이 우리의 장군님이다.

오늘도 초소의 전초기에 울려 퍼지는 병사들의 노래는 아버지장군님의 하느같은 은덕을 길이 전하며 끊이지 않고 있다.

저 멀리 자강도에 새겨진 사랑의 화폭이 삼삼히 여운이다.

그러한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인민들의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그날 이 땅 사람들의 살림살이행편은 자강도에서 장제민을 비롯하여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인민들의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그날 이 땅 사람들의 살림살이행편은 자강도에서 장제민을 비롯하여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인민들의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의 모습은 세간만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헤아릴수 있었는가.

저 멀리 최전연의 판문점초소머리 오십산과 대덕산초소 그리고 외진 섬소초 등 이 땅의 초소들마다에 령도자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군사들이 있으며 그들의 기쁨속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자욱을 전초기에 새기시는 분이 우리의 장군님이다.

오늘도 초소의 전초기에 울려 퍼지는 병사들의 노래는 아버지장군님의 하느같은 은덕을 길이 전하며 끊이지 않고 있다.

저 멀리 자강도에 새겨진 사랑의 화폭이 삼삼히 여운이다.

그러한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인민들의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그날 이 땅 사람들의 살림살이행편은 자강도에서 장제민을 비롯하여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인민들의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 한사팔잡이 떨쳐나선 좋은 인민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다 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 자라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심정을 털놓으시었다. 그리고요 한번 본때있게 일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을 남부러울것 없이 잘 살게 하고 모든 면에서 보람있이 내세우자고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좁장과 꿩기밭으로 끼니를 예우시고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간주하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니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아버지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이 있다. 엄중할 시련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누리는 크나큰 기쁨과 행복은 위대한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어 꽃피워주시었기에서 그러고 고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안겨줄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천만군민이 하나의 마음과 목소리로 리치는 위인정충의 송가는 드세한 총공격전, 인민생활향상대진군경우에 승리의 진군가로 메아리치고 있다.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더 큰 행복을 안겨 주시며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지휘하게 받들어 천만군민은 아버지장군님의 승고한 념원, 인민의 기쁨이 더욱 만발하게 꽃피는 그날에 우리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넋과 땀이 스며들어 있어 대상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전기난방화된 마을에도 들리시었다.

그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류폐없이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일련단심 당과 운명을 같이 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의 령도따라 사

한편의 영화에도 깊은 관심을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병사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몇해전 1월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들이 훌륭하게 꾸려놓은 교양실에 들리시었을 때의 일이다.

구분대의 한 지휘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방영중이 있는 영화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텔레비전화면 가까이 다가가시어 영화의 장면장면을 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군인들이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 영화로 말하면 군인들이 훈련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오한 철학적답을 주는 감명깊은 영화였다.

지휘관은 군인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특히 구분대관들이 영화를 보고 높은 훈련 목표를 제기하여 전투정신 훈련에서도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보며 좋아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고 아마 그렇것이라고 하시며 더없이 기뻐하시었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과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영화 한편에도 깊은 관심을 들리며 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이 만든 싸리바구니를 손수 만져보시는 것이었다.

지휘관은 그에게 부대에서 가마니와 싸리바구니를 자체로 만들었냐고, 그러면 군인들이 이것을 처음 만들다니 솜씨가 서름하다고 말씀드려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못 보고, 군대에 나오면 못 배우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체로 만들어 쓰니 얼마나 좋은가 하시며 그들의 간진 살림살이공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정을 담아 하시는 그의 말씀에는 구분대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정 순 화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구분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면서 구분대의 풍광에도 들리시었다.

창고안에는 가마니와 싸리바구니에 담긴 콩이 가득 쌓여있었다.

보기에도 흐릿한 콩더미를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방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이 땅 구분대 지휘관에게 군인 1인당 하루평균공급량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콩농사를 잘하였다고 하시며 정을 담아 하시는 그의 말씀에는 구분대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정 순 화

이제 구분대 지휘관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콩을 싸리바구니에 담아놓으니 바람이 잘 통하여 좋다는데 대하여

다. 자칫하면 그의 생명이 위협할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체없이 웃을 벗어 환자에게 입혀주시고 담요까지 띄워주시었다. 그러나 환자의 오한은 멎지 않았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쏠아지는 비줄기를 한몸으로 막아

피와 땀을 흘린자가 그 일이나 ...

대줄기같은 찬비가 쏟아지는 밀림의 산막에 힘겹게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소리는 그대로 생사기로서는 헤매이던 환자에게 생명의 활력을 부여준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었다.

잠시후 기척도 없이 누워있던 내대원의 얼굴에 피기가 들기 시작하였다.

정병 천혈속에도 비길데 없는 김정숙동지의 승고한 동지적사랑이 내대원으로 하여금 기적같은 힘으로 일어설게 한 것이었다. 아득한 천길밀림도 그의 눈물겨운 사랑에 감격해서인가 좌- 좌- 섰레이었다.

내대원이 소생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그를 품에 안아주시며 목메어 지으시던 김정숙동지의 환한 미소.

그 밝은 미소는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끌려온 충직한 선군혁명동지로 살며 투쟁해가고 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빛처럼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기업소에 있던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김진명 찍음

오늘 주제의 군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올해공공사업의 이구절을 새겨보노라면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고 끊임없는 선군정정을 해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력사적인 100일 전투로 온 나라가 새하게 꽃피어났고 있던 두해전 10월말에 어느날이었다.

당의 은정어린 벼슬을 타고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애출숙전 참가자들의 열광마당에는 커다란 흥분이 가득 어렸다.

바로 며칠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었다.

그러면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공연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이 정력있게 뚜렷한 작품을 가지고 사상에예술적으로 완벽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물을 쏟고야말았다. 자신께서는 똑같은 꿩기밭에서 자란 자라나고, 자라지 않은 것은 전진길을 이어가시면서도 평범한 군인들을 위해 이렇듯 응심깊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은 어머니의 천룡이였습니다.》

주제 28 (1939)년 여름에 있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간고한 행군길을 헤쳐가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열병으로 의식마저 잃은 한 내대원의 간호를 위해 오도양치의 깊은 수평속에 남겨 되시었다.

가도가도 끝없는 막막한 밀림의 산막에서 홀로 중환자를 간호한다는것은 정말 힘겨

에 붙여주시고 열을 내리게 하는 산열매와 약초를 뜯어다 밤새 달여서는 환자의 입에 떠넣어주시었다. 한여섯의 뜨거운 해열수에서 수심적씩 험한 산밭을 뚫고나면 몸은 지칠대로 지친군 하였으나 밤에 잠을 못 자고 환자의 곁에 앉아 찻잔을 해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곤

《혁명설화》

밀림속에 꽃피는 동지적사랑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까지 안겨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시는 공연은 그후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흥분리에 진행되었다. 그날 공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하게 진행하려는 군인들의 마음을 싣고 벼는 기세차게 달려왔다.

그런데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극장에 들어선 군인들에게 무대가 아니라 판파석이 차례졌던 것이다.

어느때와도 달리 공연의 출연자로부터 판파자로 된 군인들은 뜻밖의 일에 어해했다. 그들은 인중 한 일군을 통하여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자기들에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특별히 보아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이었다.

다른 공연도 아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군무자애출숙전 참가자들이 참가한 몇몇 중대의 군인들만을 위해 극장에 따로 진행한다는것을 어찌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류다른 공연이었다. 군인들의 심장을 흔드는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새히 융솜솜치게 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그날 저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국가적인 연회상까지 마련 해주시었다.

그들은 아버지장군님의 거듭되는 사랑에 뜨거운 격정의 눈

물을 쏟고야말았다. 자신께서는 똑같은 꿩기밭에서 자란 자라나고, 자라지 않은 것은 전진길을 이어가시면서도 평범한 군인들을 위해 이렇듯 응심깊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은 어머니의 천룡이였습니다.》

주제 28 (1939)년 여름에 있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구호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건군사에 새로운 장을 펼칠 령도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건군사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대덕산초소를 그려보노라면 생년길 헤쳐가시며 아양기사로 오시어 저 멀리 높고 낮은 산밭들과 적진을 굶다 불에 녹여 백두산장군들의 군엄하신 모습이 떠오르고 조용히 귀울이던 인민군대의 구호는 일당백이라고 하시며 그 본질을 밝혀주시던 천혈명장들의 우렁우렁한 음성들이 들려오는 듯했다.

《일당백》 구호의 고향대답!

이 구호에 백두산위인들의 천하무적의 당력과 배짱이 힘차게 새겨져 있다.

일당백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석벽과 튼튼한 군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전투대로 언제나 키워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새를 매는 제사하신 《일당백》의 구호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멸의 혁명무력

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구호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건군사에 새로운 장을 펼칠 령도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건군사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대덕산초소를 그려보노라면 생년길 헤쳐가시며 아양기사로 오시어 저 멀리 높고 낮은 산밭들과 적진을 굶다 불에 녹여 백두산장군들의 군엄하신 모습이 떠오르고 조용히 귀울이던 인민군대의 구호는 일당백이라고 하시며 그 본질을 밝혀주시던 천혈명장들의 우렁우렁한 음성들이 들려오는 듯했다.

《일당백》 구호의 고향대답!

이 구호에 백두산위인들의 천하무적의 당력과 배짱이 힘차게 새겨져 있다.

일당백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석벽과 튼튼한 군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전투대로 언제나 키워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새를 매는 제사하신 《일당백》의 구호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멸의 혁명무력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한 일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곳에서는 그이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서 하시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모든 지성을 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에도 컴컴한 수평을 누비고 비탈과 썩어, 벼랑을 뚫으며 총진과 가문비진을 굶다 불에 녹여 환자의 부어오른 팔과 손등

지구를 움직이는 힘, 조선의 정신력을 보라

세상사람들이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새 세기도 어느 사이에 100년세월이 지나 또다시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2011년이 되었다.

나는 2011년을 류다룬 감성속에 맞이한다.

이 글을 대하는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2011년은 동방조선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안아오시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세계의 위인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제 100년이 되는 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남들과 달리 조선인민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나는 두세기의 지평을 넘어 현대조선의 역사에서 어제와 오늘을 가장 궁극적으로 새긴 주제 100년사를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지구의 적지 않은 곳들을 편담하며 한층 많은 묘를 인간관계, 민족문제연구에 바쳤다고 자부해는 나는 이 한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투시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 조선인민의 정신, 다시말하여 그 민족의 강한 힘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하게 된다.

조선의 현실에서 민족의 정신력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임을 절대의 진리로 새겨안은 나는 인간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갈망하는 세상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나름대로 견해를 펼쳐보고자 펜을 들었다.

1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서방의 한끝에서 동방조선을 30차례도 넘게 다녀온 유일한 이탈리아인이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있는 사람이다.

조선방문중에서도 1975년 1월 13일 처음으로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 뵈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던 때가 어제일처럼 눈에 선하다. 이날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현시대는 세계인민들 모두가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하시며 시대의 특성과 인간의 본성적요구,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일순간에 세상만사를 훑게 가려볼수 있는 첼리를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들의 말씀에는 자주성이야말로 인간의 힘에 판독되는 본성이란데 대한 참으로 명철한 사상이 담겨져있었다.

육체에 힘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없는 사유를 추적도 하는 인간만이 지는 고유한 속성이며 자주성은 인간의 힘으로 체현된 가장 본질적이며 고급한 사상감정이다. 인간은 자주성으로 살려는 그 정신이 있어 다른 모든것과 구별되는 만물의 명징이다. 그래서 자주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며 힘을 잃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절단인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못 가지면 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민족으로서의 힘을 잃으면 그 어떤 민족이든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장구한 역사가 인류에게 깨우쳐준 영원한 진리이다. 조선의 지나온 역사는 그에 대한 뚜렷한 실례이다. 조선인민은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것에 반만년을 이어온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지어 말과 이름까지도 무참히 짓밟혔다.

얼마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민족이었으면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상가적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가슴아프게 회상하시었다.

그런 나라가 김일성주석각하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셔 비로소 자기의 힘을 되찾게 되었다.

현대조선은 그때로부터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만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국이 되어 세상에 자기의 존엄을 떨치고있다.

이 지구상에 오로지 김일성민족이라는 자기 수명의 존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인민은 행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아내고있다.

나의 막연한 친구인 전 이탈리아방위 사령관 월리오네스장군이 나에게 한 말이 있다. 미국이 어떻게 되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는지 기성의 군사상식으로써는 도무지 리해가 안된다

는 것이었다. 그는 국가장군을 선포한지 2년도 못되는 청소년 조선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것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이가 구칙장사를 들어매쳤다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정말 특이한 민족이라고 하였다.

월리오네스장군의 의문에 원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던 나는 그후 수십차례의 조선방문체험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온갖 전쟁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독차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원자탄까지 사용한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가진 큰 나라였다. 그런 미국이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15개 나라의 고공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었으니 이 전쟁은 사실상 미국만이 아닌 국제적 규모의 대투력과 청소년 한 나라 민족과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너무도 상상밖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조선을 알리고 <3일간이면 조선전쟁을 끝속지울것>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이 이 전쟁을 3년이 넘도록 치르지는 않았던 안되었으면 나중에는 력사상 제1회 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미국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군사경제력에서 대비 할때가 대비할수 없는 청소년 조선이 어떤 힘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그 힘의 비결이 다름 아닌 조선인민만의 특유한 정신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주장한다.

유명한 한 철학가는 사상은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며 그것이 시대의 정신으로 된다고 하였다.

조선민족의 특유한 그 정신은 바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백두산에서 창조하신 조선의 정신이다.

주석각하의 회고록에도 있는바 같이 인생의 첫걸음부터 일제에게 짓밟힌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하신 주석각하께서는 14살 어린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시며 빼앗긴 나라를 반드시 찾으려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었다.

하기에 주석각하께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민족구원의 필생의 사망명으로 받아안으시고 항일의 기치를 추켜드셨던 것이다.

후방도 없는 고립무원한 백두광야에서 새겨진것은 민족의 운명은 남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책임져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이었다.

그것이 주제사상이었다. 이 위대한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수령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고 싸웠기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혈전만리를 헤쳐나갔고 적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으며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의 노래를 불렀다. 그 무엇도 주저함이 없이 전진하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발백중의 투쟁정신, 총탄이 비바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리는 혁명적락관주의, 이를 두고 조선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한다.

이 정신을 안고 조선의 열혈투사들이 이끄시었기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신 것이다.

바로 백두의 이 정신력이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미국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게 한 것이다.

한세대에 단일 주 제국주의를 굴복시킨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 김일성각하에 의해 그 어떤 천지풍파도 헤쳐나가는 조선의 정신으로 변합없이 이어지고있다.

지금도 세인들은 조선인민의 추억의 태양사로 되어 역사를 기록된 지난 세기 90년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그 당시 대대적지진이라고도 할만큼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진 쓰러진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의 실증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리는것으로 이어져 막을 단계 될것이라는 <예언>을 가져왔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더 정확하게는 김일성각하께서 돌리었다. 그 이유는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명도하시던 김일성주석께서 그전보다 더 강위력한 정치명도력을 요구하는 력사적시기인 1994년 7월에 서거하시으로써 이 무거운 모든 짐이 김정일각하의 두 어깨에 지워졌기때문이다.

잘 알려지지않은 그때 대국상을 당하고 편이 들어달린 자연재해와 외부세력들의 압살공세에 직면한 이 나라는 사실상 생사존망의 위기에 있었다. 온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굳게 믿고 분연히 떨쳐나섰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세상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였다.

조선인민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었다. 이는 사회주의 생활혁명에 뿌리내린 민족의 정신이 즉나 사나하 하는 최악의 시련의 시기를 필사적으로 극복하고 자기의 힘을 지켜내기 위한 조선민족자존의 행군이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강자도 헤칠수 없다던 그 생사존망의 혈로를 조선인민은 불사조마냥 뚫고 오히려 강대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결국 사면팔방으로 조여드는 난관과 역경속에서 이제 북조선의 좌절은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던 서방정진들을 특히 미국정진가들의 <예측>은 물거품이 되고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었다.

정병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까 이 세상에 없다는 백두의 신념과 배짱을 지닌신 김정일각하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단천하에 시위한 정신력 강자들의 승리의 행군이였다.

동방에는 위인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 난다는 말이 있다. 김일성각하이사야말로 전제 조선민족이 상상으로 꾸미던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나선 위인이시다. 총포성 울부짖는 백두정전에서 천출명장 김일성각하와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속녀사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시며 두분 위인들의 기상과 정신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안으며 성장하시었다.

김일성주석각하의 휘하에서 싸웠던 한 백두신년투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마 사람들은 세상이 그토록 우리더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이 천고일림의 빨치산투사들속에서 몽땅마지 단말곳에 땅속에 투고 해별에 그슬린 모습으로 어머님과 함께 멀진 통강남이죽이 아니면 어느 냇 강조각을 소금에 절인 산나물일사귀에 맡아 드시며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성장하였다고 하면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력사적진실이다. ...

고생을 겪지 못한 인간에게 강한 정신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가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강철의 인간, 무비의 당과도 견줄수 없는 지니신 제일배짱가시이라고 높이 칭송하는 각하의 것처럼 강한 성품은 일찍이 온갖 시련을 헤쳐오면서 백두의 힘을 천공으로 새기신 데 있다. 그런 위인이기에 김정일각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김일성민족의 사령관이 되시어 정신력 강자들을 승려로 이끄신다.

그 정신력의 강자들을 이끄시는 김정일각하이사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지닐수 없는 최강의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결론은 김정일각하와 같이 만년을 헤쳐가는 백두의 혁명정신, 강한 정신력을 지닌 시대의 위인이민생사존망의 기로에서 민족을 구원하며 그 운명을 책임질수 있다는 것이다.

2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는 오늘날 조선인민이 자신감에 넘쳐 세상에 대고 선언한 구호이다. 이 지구상에는 이처럼 확신에 넘치고 담대한 의지가 담긴 구호를

리아 발로리

내 나라가 없다. 결심과 실천은 차이가 있다. 다시말하여 무엇을 하려는 결심과 결심하면 해낸다는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이탈리아에서 파썸을 반대하는 투쟁에 생을 바친 아버지가 파썸분자들에게 총살되기 직전에 나에게 원수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가 마음먹은대로 뜻껏 전진하라 고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를 만나주신 김정성상에서 이에 대해 들어주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조선속담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처럼 죽음도 서슴치 않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싸우는 강毅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었다.

정의의 위해 나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인생철리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나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며 주석각하께서 깨우쳐주시어 귀중한 인생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넣게 된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결심한것은 무조건 해낸다는것을 명백히 세상에 선언하였다.

어떤 배심과 담보가 있기에 한 나라가 전체 인민의 의지인 것처럼 경이적인 대명제를 높이 쳐놓을 것인가. 김정일각하의 명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불가역이란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다 아니다.>

이는 김정일각하의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난관도 헤쳐나갈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만이 내놓을수 있는 시대의 명언이다. 그런데 조선이 엄청난 최첨단 과학기술의 세계에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반응에 성공한것이기에 해내고야마는 자기 명도자의 투철한 정신을 그대로 닮았기에 조선인민은 이처럼 확신에 넘친 실천의 기조를 세상에 뚜렷이 선언하였었다.

지난해 조선은 수천정보의 대토간석지 건설의 완공을 선포하였다. 자연의 번덕으로 이어지는 지진이 세상을 경악케 한 대참사를 일으켜 한민족의 생활터전을 여지없이 파괴할 때 인간의 힘은 수천년전 자연의 인력으로 썰물과 밀물만이 엇바뀌던 조선의 서해안지대를 천리육토로 만들어 지도의 해안선표기를 다시 하지않으면 안될 상상을 초월하는 전설을 일으켰다. 우주로 추겨진 조선의 위력이 오늘날은 또 대양만리로 힘있게 내뿜고있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하나같은 마음과 지향이 없었다면 이런 현실이 펼쳐졌을 당. 대중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특수한 나라이다.

오늘날의 세상을 둘러보면 과연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진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한 나라의 수반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임기전에 탄핵당하거나 각양각색 당들이 고창하는 서로 다른 로선, 집권욕에 환장하여 민족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의 <신거> 놀음, 서로 질시하며 류혈로 이어지는 그칠줄 모르는 민족분쟁, 그러나 정치 밖에 놓인 인민대중이 정은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메이지 떠나는것이 아니라.

단결은 국가의 기초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은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단결과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적지반이나 군사적지반도 국가의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사회사본오벌되면 강한 경제군사력도 맥을 잃는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인민대중의 단결은 곧 정신의 힘이다. 그런 정신력이 창조적정열을 날리며 비터우에서 조강한 경제군사력을 마련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명도자를 중심으로 철결같이 뭉친 일심단결 그자체가 조선인민의 정신력발전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난해에 진행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전후하여 작년 다투어 전한 세계언론계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사업상관계로 지난해 평양행을 택하지 못했던 나는 TV화면을 통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성대하게 거행된 열병식을 보았다.

지난날들의 열병식도 그랬지만 이번의 열병식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집단의 하나같은 움직임이었다.

김정일각하를 우러러 격정에 넘쳐 <만세!> 환호성을 올리는 열병대로, 온 정양사가 떨쳐나선듯 한 열렬적인 환영의 인파,

분출된 화산의 용암마냥 거세하게 전진하는 장엄한 모습이었다.

특히 지구상에 몇 안되는 군사대국들도 경탄할만큼 그 위력에 있어서 세계가 없는 최첨단군사장비의 출현은 세상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다.

정병 정신력강자들만이 펼칠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경이었다. 만사람의 찬란한 불멸이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은 필승의 위력을 떨치는 조선의 강군이 자기 명도자, 자기 당에 드리는 뜨거운 경례이며 자기 힘으로 강대국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일심단결된 정신력강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찬사였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지만 지난해에 나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핵융합기술은 막대한 투자와 첨단과학기술적대가 안받침되어야 하는 새 에너지개발을 위한 기술사태를 대양을 만들어낸다는것과 같은 환상같은 의미와 안고있는 <인공태양> 기술이다.

하기에 이 기술의 개발은 현재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몇몇 나라에서만 시도되고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조선이 엄청난 최첨단 과학기술의 세계에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반응에 성공한것이기에

핵융합의 성공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파시하는 사면일뿐아니라 하고자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조선인민의 강한 정신력의 시위이기도 하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첫 기폭자 역할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온 공자 울린 력사적사건과 자기 식의 독자적인 CNC기술의 개발, 남에게 의거하지 않는 자기의 철생상체계를 완성하고 비날론폭포와 비로폭포가 쏟아지게 한데 이에 대토간석지건설을 완공한것을 통하여 세계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민발이 아니며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었다는것을 실감할수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세상에 남겼다는 발휘하려는것은 김정일각하의 불변의 의지이다.

연세국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연단에서 모리셔스의 한 인사는 지지점과 지체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수 있다고 한 고대그리스의 아키르메메스가 한 말을 상기하면서 이런 토론을 한다.

...아르키메메스는 지지점도 지체대도 언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 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주시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주체사상이다.

우리가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그 지체대는 인민대중이다. ... 나는 그의 주장이 옳은것이라고 공감했다.

오늘에 와서 나는 그에 첨부하여 이런 점을 더 명백히 하고싶다. 그런 지체대로는 대중일만이 아니라 김정일각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한대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인민대중만이 될수 있다. 인간의 자주성의 본질을 해명한 주체사상이라는 지지점이라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지체대를 가지면 지구도 움직일수 있는 힘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모든것을 움직일수 있는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정치에서의 지체대원리를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조선에서 그런 지체대를 현실로 만드셨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지체대가 있어 조선은 비록 땅덩어리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 행성의 무게도 감당해내는 힘을 지닌 강국의 지위에 오른것이다.

민족의 영원한 힘으로 체현된 조선의 정신력이야말로 나라의 밝은 전도를 기약해주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민족부흥의 대문을 여는 열쇠, 지구를 움직이는 무한대한 힘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으로 발전되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움다면 물리치기 못할 적인 없으며 극복 못할 시련도, 접멸 못할 요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비운이 드로운 땅에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 추가 주제 100년에 이른 조선의 행로가 펼쳐보인 력사적인 총화이며 인류에게 안겨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도 바뀔 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시었다.

지난해 세계언론계는 김정일각하께서 변함없이 당총비서로 추대하신 소식과 함께 새몸체를 갖춰 보인 김정은대장군에게 대하여 특별히 전했다. TV에서 그분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나는 마치도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를 뵈는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30년만에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는 선군이라는 표현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의 정신력강자들을 선택하고 높이 쳐든 선군, 이는 곧 승리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오늘날의 시대의어이다.

나는 승리완만 어울리는 선군이라는 표현을 다시금 음미해보면서 백두의 빛이 깃든 선군의 위명이 대를 이어 승려해나가리라라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은 시대위인의 힘을 체현한 그 민족의 정신력의 높이와 정비례한다는 내내나의 정의를 하게 되며 이것이 민족의 정신력과 존엄과의 관계의 어귀수 있는 <공식>으로 된다는것을 주장하여 이 세를한다.

위인의 힘이 어떤 백두의 정신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민족의 정신력으로 안고있기에 오늘날도 용화지만 휘황찬란한 패물을 주름잡아 폭풍쳐달리는 김일성민족은 반드시 강성대국의 상상봉에 올라 자기의 존엄을 더욱 높이 펼칠 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상에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넋이며 영원한 존엄이시다.

자신의 심정을 다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감으로 이 글을 맺으면서 나는 독자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2010년 1월 27일 나는 뜻밖에도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을 만나면 이탈리아에 직접 파견하시어 생일 70돐을 맞는 이 발로리에게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전달 받고 꽃바구니와 희귀한 선물을 받아 안았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미력하게나마 협력해는 나를 잊지 않고서도 변함없이 부여주시는 각하의 그 인간사랑에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마음속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내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라는 글에서 이미 쓴바 있지만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에, 민족애를 지니신 사랑의 화신이다.

김일성민족의 넋으로 체현된 백두의 정신은 근원적으로 위인의 인간사랑에 바탕을 두고있는 사랑중심의 최절정의 시대정신이다. 하기에 위인의 사랑은 민족의 정신력을 배배해주는 불사약이라는것을 세상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자자를 지향하는 진보적인인류에게 소리높이 외치고있다.

자기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부흥을 진실로 바란다면 위인의 사랑이 낳은 지구를 움직이는 힘, 조선의 정신력을 보라고...

(필자는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 이탈리아총합투자그룹 리사장, 유네스코대사, 교수, 박사인)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대토간석길에 증속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간다. -서평양기관차에서-

석탄생산이 잘되는 비결

풍곡탄광에서

석탄생산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풍곡탄광에서 부업기지를 꾸밀것을 계획했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석탄생산을 하면서 탄광자체의 힘으로 제 부업기지를 꾸릴수 있겠는가 걱정하였다. 초공담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석탄을 더 많이 캐자면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 사업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업기지를 꾸릴것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과 동적대원들은 여러 정보의 민방을 개간하고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경구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돼지목장, 토끼우리, 염소우리건설도 힘있게 내밀었다.

방목지선정으로부터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탄부들을 위한 중요 정치사업이라는것을 깊이 각고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 힘으로 뚫고나갔다.

애초 보람이 있어 목장이 훌륭하게 꾸러지고 집집순기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리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종자를 확보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직성이 높은 종업원들에게 직접 송사양관리를 맡기고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어 이 사업이 잘되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부업기지를 세우고 내기 시작하였다. 집집순마리수가 현저히 늘어나 영양제식당에 돼지, 토끼고기, 염소젖, 닭새물, 정장상으로 보장해준 된것은 물론 탄광의 세대들에 대한 후방 공급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었다.

사업이 아니라 탄부들을 위한 중요 정치사업이라는것을 깊이 각고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 힘으로 뚫고나갔다.

애초 보람이 있어 목장이 훌륭하게 꾸러지고 집집순기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리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종자를 확보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직성이 높은 종업원들에게 직접 송사양관리를 맡기고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어 이 사업이 잘되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몇해 안되는 짧은 기간에 부업기지를 세우고 내기 시작하였다. 집집순마리수가 현저히 늘어나 영양제식당에 돼지, 토끼고기, 염소젖, 닭새물, 정장상으로 보장해준 된것은 물론 탄광의 세대들에 대한 후방 공급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었다.

지금 탄광에는 증축, 비축, 새끼 돼지별로 칸칸이 꾸려져 수백마리의 돼지들이 옥실 거리고 수백마리의 토끼와 수십마리의 염소도 잘 길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매일 많은 돼지고기와 토끼고기를 생산하여 영양제식당에 대한 후방물자공급이 정상화되고 분별과 여름철에는 염소젖, 겨울철에는 온실에서 자래운 닭새가 탄부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생활을 높여주는것과 함께 100여종의 살림집을 새로 짓고 문화회관,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려주어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 있다.

최근년간 탄광에서 석탄생산은 물론 다른 모든 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신성적과는 바로 이것 일군들이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오는 과정에 마련된 지향한 결실인 것이다.

특약기자 리 혁 철

본사기자 특음

온 겨레가 안겨살 한없이 넓은 인덕의 품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인덕으로 온 겨레를 한몸에 안으시고 민족대 단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의는 겨레를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최우선시하는 민족중시의 정치이다.》

《김정일령도자님은 정녕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머니이다.》

《한번 안기면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주는 그 품,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어머니품으로 우리모두 손잡고 어서 가자!》

남녘 땅 그 어디에서나 이러한 경모의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있다.

서울에서 사는 한 로동자는 《해빛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내놓았다.

《인간의 마음에 봄을 주는 햇빛,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보듬을 주며 밝은 미래를 준다. 차갑고 어두운 이 땅에 살고있는 이남민중을 포근히 안아주는 그 사랑, 그 햇빛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이북에 있다. 남녘겨레의 인생의 봄은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정치가 펼쳐진 이북에서 오고있다.》

어느 한 사회과학수도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회심의 정치적경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자기의 걱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민중과 사랑으로 혁명도 하고 건설도 해야 한다는것이 그분의 구어이고 사람을 믿되 크게 믿고 진정으로 믿으며 영원히 믿어야 한다는것이 그분의 뜻이며 천하를 얻으려면 정치는 그것이 커야 하고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것이 그분의 좌우명이다. 이런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복정치 앞에서는 감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그들을 알고사는 사람도 없다. 김정일군부위원장님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시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든가 그 누구든지, 과거정권이 어떠한지 묻지 않았고 대법하게 포용하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대성인이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위대한 인덕의 품에 하루빨리 안기려는 남녘인민들의 심정은 《김정일장군님의 품이 진정 포용적인것은 그 품이 온 민족을 담는 바다와 같은 품이기때문이다. 그 품은 애국애족의 향기를 지니고 진심으로 단합을 지향하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영원히 뜨거운 동포로써 포용해준다.》라고 걱정을 토로한 어느 한 통일운동단체대표의 말과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야말로 모든 계급과 계층을 포용하는 무한한 품이다.》라고 열렬히 옹호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외교를 실현의 길에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겨레모두를 넓은 품에 누릴수 있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늦게나마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섰으며 참된 인생을 누릴수 있었다고 쓴 최덕진 선생의 글을 읽은 대구의 한 재야 인사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퍼력하였다.

《사상과 명도, 인덕에서 김일성주석님과 똑같이신 김정은장군님께서는 민족적합성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시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상과 신앙을 가졌던 또 그가 자본가이긴, 공산당이긴, 집권당에 있던 관계하지 않고 손잡고나누며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너무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배제하고 관용으로 대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분의 애국, 애족, 애민의 뜻을 따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에 나서시는 길에 꿋꿋이 나아가는 조국통일이 있다.》

《그 말에 공감하면서 한 언론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넓은인도량과 포용력으로 각계층 인민들을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이끄시기에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도까지도 오를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영생하고있다.》고 진정을 토로하였으며 다른 인사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야말로 모든 계급과 계층, 민족을 포용하는 무한한 품을 가진 위대한 인덕정치이다.》라고 열렬히 옹호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외교를 실현의 길에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겨레모두를 넓은 품에

안으시고 민족대단결대오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경모의 정은 이렇듯 열렬하다.

어느해인가 남조선의 한 인터넷 트윗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철학의 핵심은 민족대단결이라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린적이 있었다.

《김정일군부위원장의 민족대단결의 폭과 심도는 예측을 뛰어넘는다.》

김정일군부위원장님께서 통일이 되면 《한통련》이나 범민련만 내세울것이 아니냐고 묻는 언론사가 장군에게 우리 민족안에는 천지창조 이래부터 민족대단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김 장군님께서 이렇게 힘써 대답하시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그이의 품에 안기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통일의 밝은 밝을도 있다는 확신은 남녘겨레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불변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하나의 역사유물을 보시고도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하고있는 안악3호고분은 크고 화려한 대표적인 고구려석곽무덤이다. 주체 51 (1962)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고분을 찾으신것이다.

고분의 연설에 이르시어 돌문을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악을 흐르시었다.

유명한 돌문 한쪽모서리가 깨어져있었던것이다.

옛날에 왜놈들도 굴자들이 빗장을 빼기 위해 돌문모서리를 손사시켰던것이다.

외에의 해 상치침은 돌문을 이음으로써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유실된 사실에 대하여 마음쓰시며 천천히 무덤칸으로 걸음

을 옮기시었다. 고분의 구조들을 살펴보시며 진실한가운데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기묘하게 쌓아올린 천정에 눈을 보내시었다.

다양한 형식의 묘한 건축술로 화려하게 치러진 독특한 짜임새와 섬세한 장식문양들은 선조들의 재능과 문명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정교한 필치로 섬세하게 그려진 벽화들도 천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원상대로 보존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묘식건축술과 벽화의 색깔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자기의 고유한 모양과 색채를 그대로 보존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고분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안악3호고분은 아주 귀중한 유물이기때문에 앞으로 고분을 잘 보존하고 관리를 잘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하나의 역사유물을 보시면서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여나가기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우리는 일군들은 한없이 숭엄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목적이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역사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인민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우수성을 애국주의,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데 있다는 뜻을 담고있었다.

민속거리를 몸소 돌아보시며

주체 97 (2008)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찾으신것이다.

민속거리를 찾으시러한 경안산기사의 80여정보의 부지에 민족시절은 조선식건축물들과 우리 민족이 창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민족문화유산모형들 그리고 민족유물, 민족오락장들로 특색있게 꾸러져있었다.

이날 장시간에 걸쳐 민속거리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공부해온 고유한 조선민속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과 재능,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속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우수한 민속 전통을 살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역사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하고 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오락들을 적극 장려하고있었다는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민속놀이, 민속유희, 민속레퍼 등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들을 우리 대에 모두 찾아내고 시대적대응에 맞게 발전시켜오려는 사리에 민족문화향기가 더욱 화려하게 하여야 한다고 힘써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풍속을 귀중히 여기시고 더욱 빛내여주시러 찬바람부는 추운 날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처럼 일군들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들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청년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위훈을 떨쳐가시는 공화국군반부대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에 남조선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서대원학교의 한 교수는 이북의 청년들은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헌신의 신심과 락관을 넘쳐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청년들이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습을 갖춘 사회의 가장 참신하고 활력있는 핵으로, 청년들의 슬기와 힘으로 새 사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주역으로 되고있다.

정신도덕적순결성의 정화인 이북청년들은 지극히 정진한 기운을 안아오는 인류의 귀중한 꽃이다.

남조선의 대학교강당들에서는 북에서는 청년들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투철한 사명감을 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사회의 활력있는 대군으로, 나라의 자랑으로, 보배로 인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이북청년들이 부럽다는 격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래문제연구소 연구원 최동환은 활화산같은 열정과 활력으로 창조적 꿈을 펼치는 청년들, 맑고 순수하고 열정과 광만에 넘친 이북청년들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라 청년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유한 인격의 소유자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이북의 지방공작에 일찍이 기념비적장소들을 들은 청년들의 로적적위훈과 업적이 자랑되었다.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폐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웃음으로 맞받아 헤쳐나가는 청년들이 조국보위도 과학탐구도 건설도 맡아하고있으니 이북의 힘은 참으로 위력하고 그 미래는 휘황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 장광식은 이북의 청년들이 역사에 다시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당당히 파시 없은 위력을 세계에 떨쳐나가는 자질을 갖춘것은 김정일장군님을 지지하는 영명함 스승으로 모시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선군혁명의 역설 계승으로 훌륭히 키우신것은 장군님께서 이북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청년대군을 키우신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자랑이다.

백두회 회원 정상일은 김정일장군님께서 탁월한 청년시정치를 펼치시어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강성대국의 부강건설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을 맡겨주시었다.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은정이기에 이북청년들은 창조와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일장에서 언제나 빛나는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다 그 격조높이 말하였다.

부산의 한 지식인은 이 세상에서 청년들을 가장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께서 계시고 그분의 정치철을 높이 받드는 이북청년들이 이 민족의 현실은 창조하고 21세기는 김정일세대로 찬연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높은 문화수준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고구려인민들은 동방강국의 제토에 어울려서 유모가 배태하고 융화되려한 건물들을 수 없이 일떠세우고 그 지붕우에 다종다양한 기와들을 얹었다. 고고학발굴자료들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건축초기부터 기와를 사용하였다.

고구려기와는 종류와 무늬, 크기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특출한것이였다.

고구려기와는 일반기와, 막새기와, 서까래기와, 마루기와, 지붕장식 등 다양한 종류들로 이루어져있다.

일반기와와는 암, 수기와가 있는데 이 기와는 지붕의 넓은 면적을 덮으며 기와를 이룬다. 암기와와는 기와의 앞쪽부분에 일정한 도구로 물결모양 또는 둥근모양의 무늬 등을 새겨넣은 처마기와가 있다. 암막새기와가 쓰이기 전에 처마의 장식용을 위하여 사용된 이 기와는 중세 동북아시아나라들에서 널리 쓰였었는데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사용하였다.

북조선의 대학교강당들에서는 북에서는 청년들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투철한 사명감을 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사회의 활력있는 대군으로, 나라의 자랑으로, 보배로 인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이북청년들이 부럽다는 격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래문제연구소 연구원 최동환은 활화산같은 열정과 활력으로 창조적 꿈을 펼치는 청년들, 맑고 순수하고 열정과 광만에 넘친 이북청년들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라 청년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유한 인격의 소유자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이북의 지방공작에 일찍이 기념비적장소들을 들은 청년들의 로적적위훈과 업적이 자랑되었다.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폐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웃음으로 맞받아 헤쳐나가는 청년들이 조국보위도 과학탐구도 건설도 맡아하고있으니 이북의 힘은 참으로 위력하고 그 미래는 휘황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 장광식은 이북의 청년들이 역사에 다시 눈을 뜨게 해준 세상에 당당히 파시 없은 위력을 세계에 떨쳐나가는 자질을 갖춘것은 김정일장군님을 지지하는 영명함 스승으로 모시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산의 한 지식인은 이 세상에서 청년들을 가장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께서 계시고 그분의 정치철을 높이 받드는 이북청년들이 이 민족의 현실은 창조하고 21세기는 김정일세대로 찬연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높은 문화수준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고구려인민들은 동방강국의 제토에 어울려서 유모가 배태하고 융화되려한 건물들을 수 없이 일떠세우고 그 지붕우에 다종다양한 기와들을 얹었다. 고고학발굴자료들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건축초기부터 기와를 사용하였다.

고구려기와는 종류와 무늬, 크기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매우 특출한것이였다.

고구려기와는 일반기와, 막새기와, 서까래기와, 마루기와, 지붕장식 등 다양한 종류들로 이루어져있다.

일반기와와는 암, 수기와가 있는데 이 기와는 지붕의 넓은 면적을 덮으며 기와를 이룬다. 암기와와는 기와의 앞쪽부분에 일정한 도구로 물결모양 또는 둥근모양의 무늬 등을 새겨넣은 처마기와가 있다. 암막새기와가 쓰이기 전에 처마의 장식용을 위하여 사용된 이 기와는 중세 동북아시아나라들에서 널리 쓰였었는데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사용하였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어린 고구려기와

막새기와는 암, 수기와의 앞쪽에 여러가지 무늬가 새겨진 막새관을 붙인것으로 처마끝에 놓여 처마를 보호하고 건물의 장식적분포를 높여주는 기와이다. 대동문과 편광정을 비롯한 옛 건물들의 처마끝에 놓여있는 무늬가 새겨진 기와가 바로 막새기와이다. 암막새기와는 당시 고구려에서만 사용된 독특한것이였다. 이것은 중세시기는 물론 근대시기까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광범히 쓰인 암막새기와가 다름아닌 고구려에서 나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암막새기와와는 또한 두개의 암막새를 직각으로 맞붙인 모서리기와도 있다. 이 기와는 말 그대로 지붕의 네 모서리에 놓이는 기와이다. 모서리기와는 이 어느 나라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민족고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수막새기와와는 원형과 반원형의 막새가 붙여있다. 서까래기와는 추녀끝에 있어 맨 내모난 사막새가 붙어있고 사막새와 기와의 기와를 막새기와가 있다. 이 기와

는 사막새의 부식을 막고 그 장식용을 위하여 쓰인것이다. 지붕의 각종 무늬를 높이는 마루기와는 마루암, 수기와, 수막새기와, 여러가지 형태의 마루돌막새기와, 마루돌 받침기와가 있다. 사막새기와와 다른 형태의 마루기와와 역시 고구려기와의 독특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지붕장식용에는 치미와 피면판이 있다. 지붕봉마루의 랑끝에 마주서있는 치미는 봉마루의 받침기둥, 사선기둥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장식기둥, 여러 각무늬들은 언제나 약동적인 생활을 지향하던 고구려인민들의 자유분방하고 호방하며 락적인 성격과 진취적인 기질을 잘 보여준다.

막새와 피면판 등에 형성된 피면무늬는 비록 환상적인 동물을 형성한것이지만 마루의 강대한 힘과 고구려사람들의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듯이 매우 박력있고 쾌기있다. 꽃잎들의 사이사이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에는 고구려인민들의 세세한 감정도 잘 반영되어

생산자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할 때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혁명의 불꽃이 번져나오던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흑령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수필 계절에 대한 생각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고원군 군내협동농장에서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유기광물질비료에 깃든 사연



본사기자 최성철

